

전국 수산생산고 50% 넘는데…가공 18%·수출 7.6%뿐



☞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체계 구축 서둘러야

생산·판매 유통센터 완도 1곳뿐…충남·경남 등에서 가공도, 2021년까지 3376억 투자…정부 수출단지 조성 시급

광양항, 목포항 등 항만 인프라와 함께 전남도가 가장 시급하게 갖춰야할 것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시스템이다. 수산물이 산지 가공시설, 인근의 거점유통센터를 거쳐 광양항 등 도내 무역항에서 아시아·유럽으로 수출돼 지역 내에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며 수해가 어민·업체·소비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현재와 같이 수산물이 외지로 넘어가 가공·유통·수출돼 지역 부가가

치의 유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 144만4000t, 생산액 2조1809억원 등으로 전국 대비 52%와 34%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량은 지난 2012년 43%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5년 47%,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전복, 마역, 김 등이 선전한 덕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산식품 가공률은 실제 수산식품 가공률은 18%, 수산물 수출액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이다. 대부분의 전남 수산물이 충남, 경남 등 타지역에서 가공·유통·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선 6기 들어서야 전남도는 이 같은 문

제를 파악하고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사업’에 나섰다. 그 핵심사업 중 하나인 1000억원 규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최근에서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진도는 더디기만하다.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도 완도 1곳에 불과한 것은 물론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여수 피조개, 고흥 마역, 영광 전새우, 완도 김 등이 산지에서 가공되지 못하고 싼 가격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어민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전남 해양수산발전전략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수산식품 가공 및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기지 ▲수산 기자재 및 레저보트 산업 기지 등을 내놓고 있다. 수산물 품목별 집중 육성, 가공산업 기반 강화, 고차 산업화 등에 2021년까지 337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과 함께 수산물 생산기지의 이른 중심 1차 가공시설의 전략적 설치, 고부가가치 제품 기업과의 연계 및 상품화,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및 자체 유통시스템 마련, 수산물 전문수출 기업 육성 및 수출루트 개척 등 부문별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어 증가,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극대화, 관련 산업 부흥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16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 등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은 만큼 수산물 생산거점인 전남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중심”이라며 “최소한 수산 생산 규모 등 전남의 자원에 상응하는 정부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특검 연장·황교안 탄핵 무산

법안 법사위 통과 못해

지난달 28일 종료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를 연장하는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법사위는 2일 오후 본회의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으나,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

행 발언에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마당에 한가하게 다른 법안이나 처리하고 특검 연장법이나 특검을 새로 설치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불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오전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상정을 계속 압박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표는 3·1절인 전날 긴

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특검연장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국회 밖에서 정의당을 면담하고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추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 간의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책임진 권 위원장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탄핵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권상정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상임위원 법사위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는 ‘정공법’까지 제차 시도해본 셈이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이미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언론에 포위된 北 외교관 차량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앞에서 외교관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하려하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김정남 암살사건 수사 등을 놓고 북한과 갈등해운 말레이시아는 이날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오는 6일자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홈피,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



중국 측 ‘사드 보복’ 여부 촉각

2일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3시간여 동안 마비된 사태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서버가 있는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로부터 디도스 공격이 맞다고 확인했다”며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부터 롯데면세점의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가 3시간 이상 모두 다운됐다.

일부에서는 롯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부지 제공에 반발하는 중국 측의 사이버 보복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형식의 해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순회 토론회

행자부, 오늘 구례서

행정자치부는 3일 구례군 자연드림파크에서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공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김용구 구례부군수가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구례군은 2013년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바뀌는 등 활력을 찾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어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개발시대의 국토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 ‘억대 부농’ 늘었다

2016년 15가구 증가 4342농가
5억 이상도 133농가…3.1%

지난 2016년 한 해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농업인이 4342농가로 집계됐다. 2015년보다 15농가 늘어난 수치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는 5334농가로 2015년(5098농가)보다 236가구(4.6%) 증가했다.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 증가, 쌀값 하락 등 악조건 속에서 소득이 낮아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연령별 고소득 농업인은 50대가 1988농가(45.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1433농가(33%)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농가도 203농가(4.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기업 승계농이 100농가(49.3%)를 차지해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의 희망을 가족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1536농가(3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축산 1444농가(33.3%), 채소 684농가(15.8%)순이었다. 쌀값 하락 등으로 식량작물 분야에서 60농가가 줄었으나, 한우·돼지 가격의 상승 및 전업농 육성으로 축산 분야에서 51농가, 상대적으로 기상의 영향을 덜 받는 시설채소 분야에 36농가가 각각 늘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3472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79.9%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이 분포했으며, 5억원 이상 농가도 133농가(3.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고흥군이 509농가(1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강진군 406농가, 해남군 404농가, 보성군 395농가, 영암군 361농가, 나주시 319농가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나주시가 10.3%(30농가)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 주요 요인은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TV홈쇼핑, 해외 수출 등 적극적 판로 개척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수업기간 : 2017년 3월 2일(수) ~ 2017년 6월 10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수강료 : 20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제 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3월 17일 (금) 16:00
2.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29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용(직인생략)